창간 제6호 · 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 발행 CONDERI(콘데리)

FIRSTPAGE

퍼스트페이지

내일의 창업가·경영자가 오늘 여는 첫 페이지

테크·AI 트렌드

실적은 올랐는데 주가는 46% 빠졌다, 시장이 다시 계산한 회계와 신뢰

엔비디아 7주 연속 하락, 시가총액 2조6,000억 달러 증발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1

엔비디아 주가가 7주 연속 내리며 고점 대비 46%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으로는 약 2조6,0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기간 2028 회계연도 가이던스는 오히려 상향됐습니다. 가격을 바꾼 것은 성능이 아니라 회계와 지배구조, 수출 통제 준수였습니다.

7주에 46%

엔비디아 주가는 7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낙폭은 46%입니다. 시가총액으로 환산하면 약 2조6,0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 증시 전체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고, S&P500은 고점 대비 10% 아래에서 거래됐습니다.

실적은 나빠지지 않았다

주가가 내린 이유를 실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기간 회사가 제시한 2028 회계연도 가이던스는 상향됐습니다. 데이터센터 매출 전망도 유지됐습니다. 실적과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구간입니다.

시장이 다시 계산한 것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계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회계 처리와 공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둘째 지배구조입니다.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이 소환장을 보냈고, 내부 보고 체계와 이사회 구성이 쟁점에 올랐습니다. 셋째 수출 통제입니다. 중국으로 향하는 칩의 우회 경로를 두고 미 의회와 당국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9조 달러의 청구서

같은 흐름은 AI 인프라 전체에서 관찰됩니다. 8월 고점 이후 세계 주식시장에서 약 9조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오라클 회사채 금리는 5~7%에서 7~8.5%로 올랐고, 알파벳은 19년 만기 유로화 채권에 5.2%가 넘는 금리를 지급했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장부 밖 약정은 4조 달러를 넘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 규모가 재무상태표에 잡히지 않은 약정과 특수목적법인 채무를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약정의 현재 가치가 먼저 흔들립니다.

은행은 이미 회수 기간을 계산하고 있다

맥킨지는 은행 사례 52건을 분석해 에이전트 도입의 회수 기간이 평균 10개월, 3년 수익률이 2.9배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만 응답 기업의 6%만이 EBIT 5% 이상의 유의미한 기여를 확인했습니다.

개인 생산성 향상은 80%가 보고했지만, 손익계산서에 찍히는 성과는 아직 소수입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국면을 붕괴가 아닌 조정으로 봤습니다. 데이터센터와 전력 인프라에 들어간 자금이 실제 수요로 회수되는지가 다음 분기의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병목이 옮겨갔다

AI 산업의 병목은 반도체 성능에서 검증 가능성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무엇을 했는지 증명할 수 있는지가 투자 판단의 기준이 됐습니다. 회계와 계약, 감사 기록이 가격의 일부가 된 국면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 유럽중앙은행 자료, 맥킨지와 이코노미스트 분석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함께 장부 밖 약정 규모도 커지며 금리 민감도가 높아졌다. CONDERI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세 줄 요약

1. 1줄: 엔비디아 주가는 7주 연속 하락하며 고점 대비 46%, 시가총액 약 2조6,000억 달러가 사라졌습니다.
2. 2줄: 같은 기간 2028 회계연도 가이던스는 상향됐지만 미국 SEC 회계 조사와 캘리포니아 법무장관 소환장이 겹쳤습니다.
3. 3줄: 시장이 다시 계산한 것은 회계와 지배구조, 수출 통제 준수였고 AI 산업의 병목은 검증으로 옮겨갔습니다.

테크·AI 트렌드

AI 튜터와 공부한 학생, 2주 뒤엔 성적이 더 떨어졌다, 2,456명 실험

연습 72.1%, 도움 없는 시험 41.6%… AI를 쓰지 않은 집단은 54.2%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1

미국 고등학생 2,456명을 12주간 나눈 무작위 대조시험에서 AI 튜터 사용군은 학습 중 연습 문제에서 72.1%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도움 없이 본 시험에서는 41.6%로 내려갔습니다. AI를 쓰지 않은 집단은 같은 시험에서 54.2%였습니다.

72.1%와 41.6%

미국 고등학교 9~11학년 2,456명을 12주 동안 세 집단으로 나눈 무작위 대조시험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15만 세션을 기록한 이 실험에서 GPT-4o를 쓴 집단은 학습 중 연습 문제 정답률이 72.1%였습니다. 같은 문제를 AI 없이 푼 집단은 52.0%였습니다. 차이는 20%포인트가 넘었습니다. 2주 뒤, 도움 없이 본 시험에서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GPT-4o 집단은 41.6%로 내려갔고, AI를 쓰지 않은 집단은 54.2%로 올라갔습니다.

학습 중에 보인 우위가 시험이 끝나자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로 바뀌었습니다.

학습에 최적화된 모델은 달랐다

같은 실험에는 세 번째 집단이 있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주지 않고 질문으로 되돌리는 방식으로 학습시킨 모델을 쓴 집단입니다. 이 집단의 비보조 시험 성적은 68.9%였습니다. 같은 기간 GPT-4o 집단보다 27.3%포인트 높습니다. 모델의 크기가 아니라 대화 설계가 결과를 갈랐다는 뜻입니다.

연구진은 이 차이를 인지 부채(cognitive debt)라는 표현으로 정리했습니다. 빌린 편의는 나중에 갚아야 하는 부채처럼 남는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실험에서 그 부채의 액수는 비보조 시험 12.6%포인트였습니다.

같은 주에 나온 일곱 편의 논문

이 실험과 함께 지능정보연구 32권과 Nature Computational Science에 관련 연구가 잇따라 실렸습니다. 국내 연구진은 멀티 에이전트 구조를 조율하면 근거 출처 표기율이 40%에서 100%로 올라간다고 보고했습니다. 대신 과신을 억제하는 장치는 5개 중 1개꼴로 빠져 100%에서 80%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가 깎이는 맞교환 구조입니다.

직장인 30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위임 의향을 가른 요인이 모델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통제 가능성과 책임의 명확성이 신뢰를 만들었고, 권한 범위와 검토 지점이 정해져 있을 때 위임이 늘었습니다.

공급망 실험 7종, 231세션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AI 협업이 개인 판단과 비슷한 수준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위임·검증·보존의 3층으로 역할을 나눴을 때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판단이 걸린 순간에 AI를 판단자로 두면 무너졌습니다.

연습 점수와 실력은 다르다

이번 실험의 숫자는 AI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무엇을 측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연습 중의 정답률은 AI와 함께 푼 결과이고, 2주 뒤의 시험은 혼자 푼 결과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AI를 도입할 때 두 숫자를 구분하지 않으면 성과가 과대평가됩니다.

화상회의 도구로 공부한 학생 1,000명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1만 6,000개의 행동 로그가 남았습니다. 메타인지 지원을 붙인 집단의 성적이 더 높았고, 그 효과는 과제가 어려울수록 커졌습니다. AI를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를 바꾼다는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LearnComp 3상 무작위대조시험 결과와 지능정보연구 32권, Nature Computational Science 게재 논문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오라클 회사채 금리는 5~7%에서 7~8.5%로 올랐고, 알파벳은 19년 만기 유로화 채권에 5.2%가 넘는 금리를 지급했습니다."
>
> —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청년 취업자는 48개월째 줄었는데, 전체 취업자는 늘었다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1

10월 전체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고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0월 기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15~29세 청년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같은 달에 두 방향의 숫자가 함께 나온 배경을 봤습니다.

한 달에 두 방향

10월 고용 통계에는 서로 반대 방향의 숫자가 함께 담겼습니다. 전체 취업자는 13만9,000명 늘었습니다. 15~64세 고용률은 70.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습니다.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청년층은 달랐습니다. 15~29세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48개월 연속 감소입니다. 청년 고용률은 42.9%로 1년 전보다 1.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같은 달 전체 고용률이 최고를 기록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줄어든 자리는 어디였나

한국은행은 최근 4년 동안 줄어든 청년 일자리 28만5,000개를 업종별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그 중 26만8,000개(94%)가 AI 노출도가 높은 업종에서 사라졌습니다. 번역과 단순 사무, 기본 상담처럼 정형화된 업무가 많은 분야입니다.

반대로 늘어난 자리는 AI를 다루는 직무와 사람을 상대하는 직무에 몰렸습니다. 문제는 이 자리들이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첫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는 문이 좁습니다.

수출 기록과의 간격

11월 19일 한국은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1964년 1억 달러에서 62년 만입니다. 그 기록을 만든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석유제품입니다. 세 산업 모두 사람을 많이 쓰지 않는 구조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반도체는 전체 수출의 42.7%를 차지하지만 고용 비중은 그에 미치지 않습니다.

지난 4년의 청년 고용 변화는 이 구조 전환과 겹칩니다. 수출이 늘어도 청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구간이 생긴 이유입니다.

기업이 뽑는 방식의 변화

채용 시장에서는 실무 역량을 서류가 아니라 검증으로 확인하는 흐름이 뚜렷해졌습니다. 코딩테스트와 과제 전형이 늘었고, 일부 기업은 지원자의 작업 이력 자체를 증거로 요구합니다. 신입에게 경력을 요구하는 셈이라 진입 장벽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 창업과 인턴십으로 이 간격을 메우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청년 창업가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열었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유럽 벤처캐피털과 공동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동문 네트워크도 창업가 연결 프로그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가리키는 것

전체 고용률 최고와 청년 고용률 하락은 같은 통계 안에서 동시에 성립합니다. 고령층과 경력자의 고용이 늘고, 첫 일자리를 찾는 층의 고용이 줄면 두 숫자는 함께 나타납니다. 48개월이라는 기간은 이 흐름이 한두 번의 경기 변동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기사는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한국은행 분석 자료, 산업통상부 수출 통계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이 지면의 다른 기사

· 청년 취업자는 48개월째 줄었는데, 전체 취업자는 늘었다
· AI 튜터와 공부한 학생, 2주 뒤엔 성적이 더 떨어졌다, 2,456명 실험
· 11월 초순 수출은 111.9% 늘었는데, 코스피는 10개월 최저로 갔다
· 美 연말까지 301조 조사 완료, '관세 12.5%' 韓 추가폭탄 촉각

단신

지금 알아야 할 짧은 소식

경제·금융 기초

美 연말까지 301조 조사 완료, '관세 12.5%' 韓 추가폭탄 촉각

무역법 301조 조치에 따라 관세 12.5%를 적용받고 있는 한국에 추가 관세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테크·AI 트렌드

엔비디아, 中군 연계 기업에 AI칩 수출 추진, 앨리스 황 연관사도 포함

20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외신에 따르면 브라이언 매스트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수출통제개혁법(ECRA)에 따른 의회 권한을 행사해 엔비디아와 AMD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허가 신청 및 승인 내역을 공개했다.

창업 스토리

스몰캡 알린다던 한국IR협의회, 상폐 위기 시총 300억 미만 기업 리포트 4.7% 뿐

금융당국이 올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 기조를 밀어붙이면서 개인 투자자의 옥석 가리기 수요가 커지고 있지만,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기업을 다룬 보고서는 전체 기업분석 리포트의 4.7%에 그쳤다.

광고

CONDERI

청소년 창업교육 · SkillBridge

학교와 기업을 잇는 진로·창업 프로그램

www.conderi.com

contact@conderi.com

창업·경영

아이디어에서 출시까지, 회사를 움직이는 판단

2면

경제·금융 기초

11월 초순 수출은 111.9% 늘었는데, 코스피는 10개월 최저로 갔다

반도체가 수출의 절반, 같은 주 시가총액은 4,000조원 아래로

조경용 기자

경제·금융 기초 · 2026.11.21

11월 1~10일 수출이 334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9% 늘었습니다. 같은 주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으로 마감하며 약 10개월 만의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좋은 숫자와 나쁜 숫자가 같은 주에 나온 배경을 수출 구성과 수급, 금리에서 나눠 살폈습니다.

같은 주에 나온 두 개의 숫자

11월 1~10일 수출은 334억6,000만 달러였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1.9% 늘었고, 이 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무역수지는 87억 5,000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1년 전보다 0.5일 늘었을 뿐인데 일평균 수출도 97.7% 늘었습니다. 휴일이 줄어서 생긴 착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주 코스피는 5.21% 내린 4,869.96으로 마감했습니다. 1월 16일 이후 약 1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한 주 동안 7.9% 빠졌고, 시가총액은 3,991조3,977억원으로 1월 이후 처음 4,000조원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절반은 반도체였다

11월 1~10일 반도체 수출은 166억3,000만 달러로 전체의 49.7%였습니다. 1년 전보다 166.3% 늘었습니다. 반도체를 빼면 나머지 수출 증가율은 41.0%로 떨어집니다. 1~10월 누적으로 보면 반도체 수출은 3,96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7%입니다. 1년 전 24.4%에서 18.3%포인트 올라간 값입니다.

반도체에 쏠린 수출은 기록이자 부담입니다. 반도체 가격이 흔들리면 전체 수출이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에서 반도체는 140.7이었지만 생활용품은 79.0으로 기준선인 100을 밑돌았습니다. 컴퓨터 주변기기는 237.7%, 무선통신기기는 35.1% 늘었지만 규모는 각각 10억5,000만 달러와 6억3,00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주가는 왜 반대로 갔나

첫째, 이미 알고 있던 재료였습니다. 수출이 좋아진다는 것은 몇 달 전부터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주가는 기대가 확인되는 순간 팔리는 시장입니다.

둘째,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5.09%로 올랐고,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0.25%포인트 인상이 거의 확실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이익을 오늘 가치로 바꾸는 할인율이 높아져 성장주부터 가격이 내려갑니다.

셋째, 수급입니다. 외국인은 6거래일 연속 5조 965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이 1조5,955억원을 샀지만 낙폭을 막지 못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도 사이드카가 10거래일 만에 함께 발동했습니다.

수출과 주가의 시계는 다르다

수출 통계는 몇 달 전에 받은 주문이 통관 기록으로 찍힌 값입니다. 주가는 앞으로의 기대를 오늘 가격에 담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좋아져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 구간이 생깁니다.



지난 11월 초순 반도체 수출은 166억3,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9.7%를 차지했다. CONDERI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지난 11월 19일 연간 수출 1조 달러를 넘어선 날에도 외국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고, 지수를 받친 것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4,019억원 매입이었습니다.

11월 남은 일정

21일에는 11월 1~20일 수출 잠정치가 나옵니다. 26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3.00%의 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장은 이 두 날짜를 사이에 두고 반도체 밖 품목의 회복 여부와 금리 경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산업통상부·관세청 잠정치, 한국거래소 마감시황, 한국은행 발표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창업 스토리

수이 기반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 '하시' 메인넷 출시, 20여 개 파트너와 담보대출·자산운용 확대

하시는 비트코인을 1대1로 담보하는 hBTC를 수이 네트워크에서 발행해 대출과 자산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20

앵커리지 디지털 등 커스터디 기업과의 연계도 추진되며, 2027년에는 추가 정산 기능과 금융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수이 기반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 하시는 메인넷을 공식 출시하고 20곳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비트코인 담보대출, 자산운용 및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레이어1 블록체인 수이(Sui)를 기반으로 구축된 비트코인 금융 인프라 하시(Hashi)가 메인넷을 출시하고 기관과 개인 이용자를 위한 금융 서비스 연결에 나섰다. 하시는 비트코인을 1대1로 담보하는 hBTC를 통해 수이 네트워크에서 대출과 자산운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은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을 보관하면서 수이 기반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시 측은 메인넷 출시를 계기로 비트코인을 수이 네트워크의 대출 및 자산운용 서비스와 연결하고, 기관과 개인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컴벌랜드(Cumberland)와 웨이브 디지털 애셋(Wave Digital Assets) 등 기관 파트너들도 하시를 활용한 비트코인 및 스테이블코인 운용과 수이 생태계의 유동성 공급에 참여할 예정이다.

업시프트의 볼트는 현재 운영 중이며, 엠버의 볼트는 2026년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다.

메인넷 출시와 함께 커스터디, 거래, 대출, 자산운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하면서 비트코인을 금융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확대됐다. 탈중앙화 금융 프로토콜 플루이드(Fluid)는 수이에서 기관급 대출 서비스를 가동하고 비트코인 담보 스테이블코인 대출을 제공한다. 업시프트와 엠버(Ember)는 커스터디 기업과 거래소, 수이 기반 프로토콜이 별도의 운용 시스템을 처음부터 구축하지 않고도 연결할 수 있는 볼트(Vault) 인프라를 제공한다.

창업 스토리

한국투자증권, 청년 창업가 자립 지원, '드림 셰르파' 네트워킹 개최

단순 기부나 일회성 후원금 전달에 그치던 기존 금융권 사회공헌에서 나아가,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세무·회계 자문, 선배 스타트업과의 일대일 사업 매칭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20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본사에서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한국투자 드림 셰르파 네트워킹 데이' 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이 그룹 내 벤처·스타트업 육성 역량과 임직원의 재무·세무 전문성을 결합해 청년 창업가의 초기 생존과 시장 안착을 돕는 인큐베이팅 모델을 본격화했다.

단순 기부나 일회성 후원금 전달에 그치던 기존 금융권 사회공헌에서 나아가,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부터 세무·회계 자문, 선배 스타트업과의 일대일 사업 매칭,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판로 제공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실질적인 창업 생태계 조력자로 나서는 행보다. 올해 새롭게 출범한 '한국투자 드림 셰르파'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창업과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첫 기수로 선발된 도예, 조향, 의류, 치유농장, 전통식품 등 5개 분야 창업 기업은 팀당 최대 2천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 준비에 나섰다.

>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창업이라는 험난한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선배 기업가들과의 교류가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독자적인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성공적으로 자립할 때까지 셰르파로서 계속 조력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한국투자증권 임직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세무·회계 컨설팅을 제공해 초기 기업이 흔히 겪는 재무·세무 관리 공백과 행정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다. 현장에는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전문 심사역들과 함께 청년 창업 아이템과 유기적인 사업 협력이 가능한 액셀러레이터 포트폴리오 기업 5개 사 대표들이 멘토로 참석했다. 이번 네트워킹 데이는 그룹 내 전문 액셀러레이터(AC)인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와의 시너지를 통해 실전 중심 멘토링의 밀도를 높인 점이 특징이다.

오는 12월 서울 여의도 본사에 드림 셰르파 선발 팀들의 제품을 선보이는 팝업스토어를 마련해 금융권 임직원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매출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창업 스토리

젠엑시스, 기보벤처캠프 19기 10개사 투자유치 역량 강화, 로아키친·마이일타·라제온 우수기업 선정

프로그램은 기업진단과 전문가 멘토링, IR 자료 고도화, 피칭워크숍 등 초기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준비에 필요한 과정으로 구성됐다.

조경용 기자

창업 스토리 · 2026.11.20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젠엑시스가 '2026년 기보벤처캠프 제19기' 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별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11월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열린 데모데이에서는 로아키친, 마이일타, 라제온이 우수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향후 진행될 기보벤처캠프 제19기 통합 데모데이 및 수료식에서도 참여기업의 주요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젠엑시스는 지난 11월 16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2026년 기보벤처캠프 제19기 개별 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참여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주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참여기업 10개사가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모델과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결과 로아키친 마이일타 라제온

평가 결과 로아키친, 마이일타, 라제온 등 3개사가 우수참여기업으로 선정됐다. 투자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투자 연계와 TIPS 연계 가능성 검토, 후속 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기업들이 보육 과정에서 개선한 사업모델과 투자유치 전략을 실제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젠엑시스 관계자는 "이번 기보벤처캠프 제19기는 기업마다 서로 다른 성장과제와 필요한 지원을 파악하고, 이를 실제 사업화와 투자유치 준비 과정에 연결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젠엑시스는 제19기 운영사로 참여해 기업별 성장 단계와 사업 특성에 맞춘 보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각 기업은 7분간 사업모델과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진 5분간의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했고, 심사위원들은 경영자 역량과 사업아이템의 타당성, 사업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젠엑시스가 초기 기술창업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투자자 평가를 통해 사업화 준비 성과를 점검했다.

단신

창업 스토리

청년창업사관학교 총동문회, 'K-유니콘 드림쇼 2026'서 선후배 창업가 연결, 전국 동문 네트워크 강화

청년창업사관학교 총동문회(KONE)가 11월 19일 열린 'K-유니콘 드림쇼 2026' 에서 선후배 창업가 교류 프로그램 '알럼나이데이' 를 운영했다.

창업 스토리

퀄컴 출신 최원준, 10년 만에 삼성 스마트폰 수장으로, 기술 넘어 수익성 회복 특명

글로벌 스마트폰 평균판매가격(ASP)이 올해 3분기 442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ASP는 367달러로 21% 올랐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

용어사전

코스닥, 중소·벤처 기업이 주로 상장된 주식시장

경제를 읽는 데 필요한 한 가지

조경용 기자

용어사전 · 2026.11.21

‘코스닥’은 중소·벤처 기업이 주로 상장된 주식시장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5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았다.

코스닥은 중소·벤처 기업이 주로 상장된 주식시장이다.

성장 기업이 많아 변동성이 큰 편이다. 상장 요건과 관리 기준이 코스피와 다르다.

퍼스트페이지 기사에서 이 말은 ‘경제·금융 기초’, ‘청소년 기업가’, ‘경영·전략’ 면에 나온다. 자체 용어사전은 이 말을 ‘경제’ 분야로 묶는다.

이 말이 가리키는 것

한국어 위키백과는 코스닥을 “코스닥(영어: Korea Securities Dealers Automated Quotations, KOSDAQ)은 1996년 설립된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이다”라고 적는다.

문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첨단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NASDAQ) 시장을 본떠 만든 것(벤치마크)으로, 유가증권 시장과는 규제 조치가 별개로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 “코스닥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이 증시에서 사업자금을 보다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 “중소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겐 유가증권시장의 문턱이 너무 높고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탈락할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들 기업만을 위한 시장을 하나 더 만들어, 증시에서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 “출범 초반 코스닥 시장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1년간 거래량이 증권거래소의 1~2일분에 불과했다.”

> “여기에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코스닥 시장은 더욱 침체에 빠져들며, 1998년 10월 코스닥 지수는 60.7을 기록했다.”

> “코스닥 시장이 활황세를 보인 것은 1999년 IT 벤처 붐과 함께였다.”

> “그 당시 코스닥 시장의 대표적인 종목인 새롬기술 주가는 1999년 8월 2,575원에서 2000년 2월 308,000원까지 120배 가까이 올랐다.”

> “다음은 1999년 11월 11,200원에서 406,500원까지 단지 2개월 만에 36배 넘게 올랐다.”

코스닥이 등장한 문장

퍼스트페이지가 11월 20일 보도한 「래블업, 코스닥 상장 후 첫 실적 발표, 3분기 누적 매출 48.2% 증가」 기사는 “이달 코스닥에 입성한 래블업이 상장 후 첫 분기 실적을 공개하며 AI 인프라 사업의 성장세와 향후 확장 전략을 제시했다”라고 전했다.

11월 20일 보도한 「6촌에 일감, 부친 대부업체서 차입, 이나인페이, 상장 앞두고 ‘가족 거래’ 정리」 기사는 “해외송금 전문기업 한패스만 해도 지난 3월 공모가 1만9000원에 코스닥시장에 입성했지만 상장 6개월 만에 주가가 75% 빠졌다”라고 전했다.

11월 19일 보도한 「수능일 아침, 증시는 10시에 문을 연다」 기사는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 거래시간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임시 변경했다”라고 전했다.

11월 18일 보도한 「공공기술로 창업한 기업, 상장 요건과 VC 투자 기준을 한자리에서」 기사는 “기술특례상장은 이익을 내지 못한 기업도 외부 기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공공기술 기반 기업이 중장기 성장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할 수 있는 경로다”라고 전했다.

11월 17일 보도한 「금리 5.15% 시대, 2027년 예산은 성장보다 생존부터」 기사는 “코스닥은 699.66(0.45%)으로 강보합이었고, 반도체가 빠진 자리를 증권과 건설, 금융이 채웠다”라고 전했다.



코스닥 — ‘코스닥’은 중소·벤처 기업이 주로 상장된 주식시장이다. 퍼스트페이지가 보도한 기사 5건에서 이 말이 실제로 쓰인 문장을 찾아, 정의와 함께 놓

그림=FIRSTPAGE

이어서 읽을 말

이 말과 함께 읽는 용어로 ‘코스피’, ‘리츠’, ‘ESG’가 있다. 같은 자리에서 쓰이지만 가리키는 것이 다르다.

‘코스피’는 한국거래소의 대형 기업 중심 주식시장이다. 삼성전자 같은 큰 회사들이 상장돼 있다.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볼 때 코스피 지수를 많이 본다.

‘리츠’는 여러 사람의 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나누는 회사이다.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어 적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다. 배당이 많지만 금리와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받는다.

‘ESG’는 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를 함께 보는 경영·투자 기준이다. 돈을 잘 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떻게 버는지도 본다. 다만 기준이 애매해 '그린워싱'을 가려내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 글은 한국어 위키백과의 ‘코스닥’ 문서, 퍼스트페이지 자체 용어사전, 퍼스트페이지 보도 기사 「래블업, 코스닥 상장 후 첫 실적 발표, 3분기 누적 매출 48.2% 증가」, 「6촌에 일감, 부친 대부업체서 차입, 이나인페이, 상장 앞두고 ‘가족 거래’ 정리」, 「수능일 아침, 증시는 10시에 문을 연다」 등 공개 자료를 근거로 작성했다.

테크·AI 트렌드

더인벤션랩·삼천리, 로봇 구동·무선충전 스타트업 2개사 투자협약, 미래 모빌리티 협력 확대

더인벤션랩은 선정기업의 기술이 실제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이어간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에너지 기업 삼천리와 초기투자기관 더인벤션랩이 공동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에서 로봇 구동과 무선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2곳이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신에너지·친환경·모빌리티 분야에서 약 100개사가 지원했으며, 로봇 구동 모터 기업 누빈다와 무선충전 기술 기업 코일즈가 최종 선정됐다. 더인벤션랩과 삼천리가 공동 운영하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S-Together'가 세 번째 시즌 밋업데이를 개최했다.

초기투자기관이자 벤처스튜디오 전문기업인 더인벤션랩(대표 김진영)은 삼천리와 공동 운영한 ‘삼천리 S-Together’ 프로그램의 밋업데이를 지난 13일 경기 군포 삼천리모터스 커넥티드 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삼천리는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두 기업의 기술을 검토하고, 로보틱스와 미래 모빌리티 등 신성장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김진영 더인벤션랩 대표는 “S-Together가 3년째 이어지며 스타트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삼천리는 기업

삼천리는 두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로보틱스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사업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성장하면서 완성품뿐 아니라 구동과 충전 등 핵심 부품 기술을 확보한 스타트업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더인벤션랩은 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서 선정기업의 후속 지원과 삼천리와의 사업 협력 연계를 추진한다. 밋업데이에는 삼천리 임직원과 협업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사진=벤처스퀘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모터와 다양한 로봇·드론에 적용할 수 있는 충전 기술은 제품 성능과 운용 효율을 좌우하는 요소다.

테크·AI 트렌드

중국산 자동차 발도 못 붙이게 한다, 초당적 입법 처리 나선 美 의회

현재도 중국산 자동차는 높은 관세와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차량 기술 사용 제한 조치로 사실상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산 자동차의 미국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의 수정 협상에서 합의에 근접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 의회가 중국산 자동차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막는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동차 생산 지역 출신 의원들이 앞서 상원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의 일부 조항을 조정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법안을 통과시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다는 목표다.

현재도 중국산 자동차는 높은 관세와 미국 상무부의 중국산 차량 기술 사용 제한 조치로 사실상 미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회사들의 영향력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자동차 산업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저가 전기차를 앞세워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차량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과 경제 안보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의회는 이러한 규제를 법률로 명문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해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장기적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가 카메라와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수집한 운전자 이동 경로와 주요 시설 정보를 중국 당국에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차량을 원격 조작하는 데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중국 기업이나 개인이 지분 15%를 초과해 보유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데이터 전송 기능을 갖춘 차량을 미국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중국 국유 자동차 업체 베이징자동차그룹(BAIC)이 벤츠 지분 약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지리자동차 창업자인 리수푸도 10%가량 갖고 있다.



사진=매일경제

중국 자본이 일부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 자동차 업체까지 판매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단신

테크·AI 트렌드

비트코인, 6만달러마저 '위태', 일주일새 10% 급락

투자심리가 위축될수록 0에 가까워지는 코인마켓캡 ' 공포와 탐욕 지수' 는 100점 만점에 10점으로 ' 극단적 공포' 단계다.

테크·AI 트렌드

유비파이, 국방부 주최 드론 공방전 대드론 부문 1위, 재밍 환경 대응 기술 검증한다

드론 군집비행 및 자율비행 플랫폼 전문기업 유비파이가 담스테크, 알에프코어와 구성한 컨소시엄으로 ‘2026 대한민국 드론 공방전’ 대드론 부문에서 최종 1위를 차지했다.

광고

FIRSTPAGE 지면 광고

청소년이 실제로 읽는 지면에 브랜드를 싣습니다 · contact@conderi.com

firstpage.conderi.com

오피니언·사람

청소년 기자단의 시선과 현장의 목소리

테크·AI 트렌드

앤트로픽이 짚은 AI 병목 지도, GPU 넘어 전력·냉각·광통신 인프라로

시장조사기관 마켓그로쓰리포트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시장은 올해 100억달러에서 2035년 430억달러로 연 16.3% 성장이 예상된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불과 2년 전만 해도 엔비디아의 GPU 확보가 최대 관건이었지만, 이후 고대역폭메모리(HBM), 전력, 냉각과 광통신으로 병목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 증시에 입성한 인공지능(AI) 모델 개발사 앤트로픽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AI 산업의 병목 지도를 공개했다. 오는 24일 상장하는 한화자산운용의 PLUS 글로벌AI병목인프라액티브는 이 병목 현상을 겨냥했다. 대규모 자금을 확보한 앤트로픽이 인프라 투자에 나서면서 최근 주춤했던 AI 투자 불씨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는 스페이스X(750억달러)를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다.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시장

구분 · 억달러

올해 · 100.0

2035년 · 430.0

시장조사기관 마켓그로쓰리포트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시장은 올해 100억달러에서 2035년 430억달러로 연 16.3% 성장이 예상된다.

> "업계 관계자는 "앤트로픽이 증권신고서에서 꼽은 병목들이 향후 AI 인프라 투자의 방향을 보여준다"며 "어디서 병목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의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 발전설비 부족, 기존 발전원 퇴역 등이 맞물리면서 전력가격이 오르고 전력망 연결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노코드 도구로 화면을 만드는 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네트워크 병목도 앤트로픽이 지목한 제약 요인이다.

발전·송배전·냉각·광통신·ESS AI

발전·송배전·냉각·광통신·ESS 등 AI 인프라 전반을 담되, 분기마다 병목 정도를 재평가해 투자 비중을 조절한다는 계획이다.

테크·AI 트렌드

LG U+, 전기차 충전 기업 '볼트업' 독자 경영, 카카오모빌리티 지분 인수

LG유플러스가 카카오모빌리티와 공동 설립한 전기차 충전 전문기업 '볼트업'을 완전자회사로 전환한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LG유플러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볼트업 지분을 전량 인수해 지분율 100%를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보유한 지분을 전량 인수해 단독 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지분 인수는 전기차 충전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다.

LG유플러스는 2021년 전기차 충전사업에 진출한 뒤 2023년 충전 서비스 '볼트업'을 출시했다. 볼트업은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4년 6월 공동 설립한 전기차 충전 전문기업이다.

이에 따라 출범한 양사

이에 따라 2024년 6월 출범한 양사의 합작 경영 체제는 약 2년 5개월 만에 종료됐다. LG유플러스(14,970원 ▼210 -1.38%)가 카카오(31,000원 ▼900 -2.82%)모빌리티와 공동 설립한 전기차 충전 전문기업 '볼트업'을 완전자회사로 전환한다.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단독 경영 체제 전환을 계기로 충전 서비스 품질과 고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충전기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는 한편, 시장 수요에 맞춰 새로운 사업 기회도 발굴할 예정이다.

케빈 조 LG유플러스 CSO(최고전략책임자·전무)는 "이번 지분 인수는 볼트업을 보다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시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볼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코드 도구로 화면을 만드는 손.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아는 것이 먼저다. (자료사진)
사진=FIRSTPAGE ·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테크·AI 트렌드

지엔소프트, 채용문화 우수기업 선정, 지원자 중심 '거꾸로 채용'으로 공정성 강화

신규 입사자를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과 지역 대학 연계 채용도 운영하고 있다.

조경용 기자

테크·AI 트렌드 · 2026.11.20

앞으로 개발 직군의 AI 실무 역량 평가를 도입하고, 2027년에는 면접 일정 조율과 평가 피드백 확인이 가능한 자체 채용 홈페이지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엔소프트(대표 김진수)가 '2026년 채용문화 우수기업 어워즈'에서 민간부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상을 수상했다. 공공 AI 전문기업 지엔소프트가 지원자 중심의 채용 제도를 운영해 온 성과를 인정받아 채용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지엔소프트가 운영하는 '거꾸로 채용' 제도를 통해 채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자의 직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

거꾸로 채용은 기업이 지원자를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기존 채용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제도다.

회사의 매출액

구분 · 억원

2021년 · 74.0

2025년 · 170.0

회사의 매출액은 2021년 74억 원에서 2025년 170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엔소프트

지엔소프트는 지원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거꾸로 채용' 제도를 도입하고 직무·근로조건 공개,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 면접관 교육 등을 통해 채용 절차를 개선해 왔다.

지엔소프트는 자체 채용 모델과 운영 경험을 협력사에도 공유해 중소 IT 기업의 채용문화 개선과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한다.

2027년에는 자체 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지원자와 기업이 면접 일정을 양방향으로 조율하고 평가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일방적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자 역시 기업의 업무 환경과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기업 역시 명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채용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벤처스퀘어 원문 기사 이미지.
사진=벤처스퀘어

단신

테크·AI 트렌드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CCTV 저장 용량 줄이는 '슈퍼 AI 코딩' 공개, 국내 실측 사례 소개

슈퍼 AI 코딩은 H.265 기반 영상 압축 기술로, 사람과 차량 등 주요 객체의 화질을 유지하면서 CCTV 영상 저장 용량을 줄이도록 설계됐다.

테크·AI 트렌드

수출 1조 달러 열었지만, 통상압박·양극화·반도체사이클 '삼중 과제'도

한국이 사상 첫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수출 규모가 커진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늘었다.

광고

CONDERI EDU

학교 창업교육

프로그램 문의

contact@conderi.com

FIRSTPAGE 지면 광고 문의 · contact@conderi.com